

한국 노인이 지각한 부부 및 성인자녀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 수 균¹⁾ 이 윤 희¹⁾ 안 정 신²⁾ 정 영 숙^{1)†}

¹⁾부산대학교 심리학과

²⁾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노년기의 주된 대인관계인 부부와 성인자녀 사이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갈등을 탐색한 후, 갈등 영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남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남자 노인 53명, 여자 노인 62명, 총 115명(평균연령 68.99)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경험하는 부부갈등은 부부관계 영역, 공동생활 영역, 개인 내 영역, 부부 외 가족관계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자 노인은 부부관계 영역에서 여자 노인보다 더 많은 갈등을, 여자 노인은 개인 내 영역에서 남자 노인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셋째, 노인이 경험하는 성인자녀와의 갈등은 관계 영역, 자녀의 자립 및 자기관리 영역, 손자녀 문제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자 노인은 관계 영역, 자녀의 자립 및 자기관리 영역, 손자녀 문제 영역 모두에서 남자 노인보다 성인자녀와의 사이에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주요어 : 노인, 부부 갈등, 성인자녀 갈등, 탐색적 연구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303).

† 교신저자: 정영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Tel: 051-510-2135, E-mail: yschong@pusan.ac.kr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남자는 77.2세, 여자는 84.1세이고, 노인 인구의 비율은 11.0%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010, 통계청). 평균수명과 노인 인구비율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의 노인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노인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 노인 연구의 초점은 노인 개인에게서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Allen, Blieszner, & Roberto, 2000). 또한 최근 성공적인 노화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가족 및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강인, 2003; 강혜원, 2011; 박경란, 이영숙, 2002; 성혜영, 유정현, 2002; 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Cooney, 2011; 윤현숙, 유희정, 2006; 전지혜, 2012; 정여진, 안정신, 2010; 최혜경, 2008). 노년기는 생활범위가 가족으로 축소되는 시기로 부부나 자녀 등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강주령, 1990; Antonucci, 1985). 따라서 노년기의 주된 대인관계라 할 수 있는 부부관계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노인이 겪는 갈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해하고 노년기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부부갈등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간에 기대하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절충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송성자, 2002). 결혼 후 부부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

등의 양은 부부마다 다르고, 한 부부가 경험하는 갈등의 종류 또한 가족 주기의 각 단계마다 달라진다(김양희, 이형실, 1997). 노년기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킬 때의 시간, 노동,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난 시기로, 노년기 부부들은 자녀가 집을 떠남에 따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새로운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김길현, 하규수, 2012; 김양희, 이형실, 1997; 김재엽, 김동배, 최선희, 1998; 전길량, 임선영, 1998). 또한 노년기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자원이 감소하게 되는 시기로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협동의 과정에서 부부 간 갈등을 경험하기 쉽다(전길량 등, 1998). 즉, 노년기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의 감소와 함께 부부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전반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부부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전길양 등(1998)은 노부부는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하고 있다고 하였고, 김재엽 등(1998)은 노인 부부가 보고하는 갈등수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율이 전체 이혼율의 22.8%인 28,300건(쌍)으로 2004년의 25,400건(쌍)에 비해 11%나 늘어나고, 전체 노인부부의 약 21.5%가 지난 1년간 부부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결혼 20년차 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부부갈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오히려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갈등이나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재엽, 1998; 천혜정, 최혜경, 강인, 2006; 통계청, 2010). 이러한 노인 부부갈등의 증가

는 사회변화에 대한 수용 및 역할 전환과 역할 적응 과정과 관련이 깊다(김태현, 1998).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남자 노인과 현대의 평등적 가치관을 수용한 여자 노인은 의사소통 방식, 가사분담, 여가시간 활용, 애정 표현이나 성관계 등 부부생활 전반에서 기대의 불일치를 경험하기 쉽다. 또한 노년기는 이전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과 역기능이 그대로 넘겨지면서 갈등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Atchley, 1994).

노인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는 노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부부갈등의 제 영역에 대한 이해 없이 이론이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부 영역에 한해 이루어졌다. 전길양 등(1998)은 노부부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갈등영역을 부부 간의 성격문제, 경제적 문제, 의사소통문제, 성문제, 자녀문제로 제한하여 조사하였으며, 김영자(1992)는 주로 성격요인과 관련된 갈등을 연구하였고, 김재엽 등(1998)은 생활비 관리, 청소 및 요리, 자녀문제와 같은 세 가지 주요 가사영역에 대한 부부갈등을 연구하였다. 노치영(1995)은 부부갈등의 주체를 기준으로 갈등영역을 부부 각각의 개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개인문제, 부부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부 내부 문제, 그리고 부부 두 사람 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부 외 문제, 3가지 차원으로 설정하였다.

이경희(1998)는 Marks(1989)의 부부관계 영역에 대한 체계론적 분류범주에 기초하여, 기존에 실시된 모든 연령대의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 정리하면서 부부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취급한 영역을 모두 포괄해서, 부부가 생활하고 관계하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이경

희(1998)는 부부갈등의 영역을 개인특성 영역, 부부관계특성 영역, 공동생활특성 영역, 제삼자특성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후의 대부분의 노년기 부부갈등 연구는 이경희(1998)가 개발한 부부갈등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소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김경신, 이선미, 2003; 김재엽 등, 1998; 김희국, 2010; 전길량 등 1998; 정연표, 이홍직, 2011). 이는 노년기 부부 갈등 영역을 일부 영역에 국한하여 실시한 앞선 연구들보다는 발전된 형태이나, 노인이 실제 경험하는 갈등의 제 영역을 노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 않고 여전히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을 개별 면접하여 노인으로부터 직접 실제 겪고 있는 부부갈등의 제 영역을 확인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각 영역 별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노년기 부부 갈등의 남녀 차를 직접 다룬 연구는 드물며, 노년기 적응, 결혼 만족, 생활만족 등의 개념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노년기 부부 갈등의 남녀 차를 추론할 수 있다. 변화순(1999)은 남자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여성성이 증가하고, 수동성을 보이며, 부부관계에서 부양과 애착을 더욱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욕구가 좌절되면서 오는 갈등이 여자 노인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하였다. 김경신(1998)과 노치영(1995)의 연구를 살펴보면, 남자 노인은 가부장적 권력자로서의 우월한 지위구조에 익숙해져 있어 무시에 취약한 반면, 여자 노인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부부 간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결혼관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껏 복종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감수하였던 것을 거

부하며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게 되어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부부관계에서 남녀가 서로 중시하는 욕구에 다소 간 차이가 있어 갈등 양상이 남녀 차이가 날 수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기 중요한 대인관계의 또 다른 축은 성인자녀와의 관계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보다 자녀와의 관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어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김미령, 2012; 한경혜, 홍진국, 2000; Ikkink & Tilburg, 1999). 핵가족화로 전통적으로 당연시 하던 성인자녀의 동거부양이 감소하였고, 공적 및 사적 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또한 감소하고 있다(박인옥, 엄기옥, 2006). 하지만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였다(민무숙, 1995; 전길량, 1993; 정경희, 오여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김희경, 2005; (McCulloch, 1990). 반면, 성인자녀들은 부모보다는 배우자나 자식들과 정서적 친밀함을 느끼고 있어 노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친밀감은 좌절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갈등이 예상된다(Seelbach, 1978). 또한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의 가치 체계는 전통사회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전통적 가치가 내면화 되어있는 반면, 자녀세대는 급변하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 속에서 현대식 교육을 받고 현대적 가치관을 체득해 가치관이나 생활의 여러 측면들에서의 차이로 갈등이 클 것이다(조경자, 한동희, 조은희, 1996; 최재석, 1982).

노인과 성인자녀의 관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자녀의 부양 의식 및 행동과 부양 스트레스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다(송현애, 김순옥, 1988; 김태현, 이영자 1992; 김태현, 한은

주 1994; 서병숙, 이신숙, 1991, 1993a, 1993b, 1994; 김명자, 이윤정, 1995, 홍숙자, 이형실, 전길양, 1995; 옥경희, 1996; 이희자, 김영미, 1996; 홍달야기, 동환숙, 1996; 이정화, 한경혜, 2000; 송다영, 김미경, 2003; 송다영, 2004). 노인과 성인자녀 간의 갈등을 다룬 연구가 있기는 하나, 갈등의 원인,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갈등이 노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신일진, 김태현, 1991; 최정혜, 1993; 이윤정, 이신숙, 신효식, 1994; 김지영, 허성호, 고해리, 2005; 김귀애, 홍창희, 2012). 노인과 자녀 간 갈등 영역을 다룬 연구는 최정혜(1992)와 조경자 등(1996)의 연구가 전부이다. 최정혜(1992)는 개별면담을 통하여 얻은 정보와 문헌연구를 기초로 경제적 갈등, 가치 갈등, 건강 갈등, 정서적 갈등, 재산 갈등, 역할 상실 갈등 등 총 7 개의 갈등을 제안하였다. 조경자 등(1996)은 Suitor와 Pillemar(1988)이 노인과 동거 자녀를 대상으로 개발한 노부모 성인자녀 갈등 척도를 응용하여, 갈등 영역을 돈관리, 다른 친지들과의 관계, TV, 음식, 과음 및 도박, 친구관계, 식사 및 수면시간 등과 같은 생활의 차이로 두고 살펴보았다. 이 두 연구 모두 노인이 경험하는 성인자녀와의 갈등을 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지 않고, 선행연구와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갈등 영역을 제안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이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제 영역들을 확인하고, 이어 남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남녀차이에 관해 살펴보면,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안정신(2005)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는 더 가깝고, 책임감도 더 많

이 느끼나 부모로서의 만족감은 낮다고 하였고, 이운정, 이신숙, 신호식(1994)과 최정혜(1992)의 연구에서는 노부모 중 여자 노인들이 자녀와의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일제 및 시간제 취업모의 아동자녀 40.7%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며, 취업모의 58.8%가 출산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으로 조부모를 기대하고 있고(통계청, 2005), 손자녀 양육에서 조부모 중 조모의 양육비율이 87.5%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손자녀 양육에 여자 노인이 더 많이 개입되어 있어 남자 노인보다 자녀 갈등을 더 많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부부 및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즉, 각각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제 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남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우리나라의 노인에게 맞는 부부 및 자녀갈등 척도 개발과 갈등 관련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숙한 노화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조사대상

부산에 거주하는 60세에서 83세까지의 배우자가 있는 노인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8.99(SD=5.41)세였고,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은 각각 53명(46.1%), 62명(53.9%)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동거인 유형에서 독거 2명, 자녀 동거 3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 배우자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

조사방법

2012년 11월 약 2주에 걸쳐 개별 방문을 통한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1회 면접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면접자는 심리학과 아동가족학 전공의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이해하고 구조화된 면접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다.

대인반응은 크게 내재적 경험, 외현적 행동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갈등으로 인한 내재적 경험과 외현적 행동을 모두 보고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Wagner, Kiesler & Schmidt, 1995). 아래에 제시한 표 2의 본 연구의 개방형 질문 1, 4는 갈등이 겉으로 표출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과격한 다툼행동, 사소한 대화 시 말다툼과 같은 외현적 행동을 상기하도록 하였고, 질문 2, 3은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서 겉으로 갈등이 표출되지 않는 것이라도 대인관계에서 겪은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갈등과 관련한 내재적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인위적으로 응답을 만들거나,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이탈하여 지적이거나 논리적인 응답으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거나, 구체적인 경험을 추상화하여 응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경험을 준거로 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최상진, 이장주, 1999). 또, 질문은 최근에 경험한 사건으로 제한하였

표 1.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	여	전체
		53 (100.0)	62 (100.0)	115 (100.0)
연령	60-64세	10 (18.8)	18 (29.0)	28 (24.3)
	65-74세	27 (50.9)	37 (59.6)	64 (55.6)
	75-85세	16 (30.1)	7 (11.2)	23 (20.0)
교육수준	무학	2 (3.8)	2 (3.2)	4 (3.5)
	초졸	7 (13.2)	21 (33.9)	28 (24.3)
	중졸	8 (15.1)	18 (29.0)	26 (22.6)
	고졸	20 (37.7)	15 (24.2)	35 (30.4)
	대졸	16 (30.2)	6 (9.7)	22 (19.1)
평균소득	100만원미만	15 (28.3)	16 (25.8)	31 (27.0)
	100만원대	11 (20.8)	16 (25.8)	27 (23.5)
	200만원대	12 (22.6)	13 (21.0)	25 (21.7)
	300만원대	7 (13.2)	10 (16.1)	17 (14.8)
	400만원대	4 (7.5)	4 (6.5)	8 (7.0)
	500만원이상	4 (7.5)	3 (4.8)	7 (6.1)
소득원천 (중복응답)	유급활동	15 (28.3)	21 (33.9)	36 (31.3)
	재산소득	15 (28.3)	20 (32.3)	35 (30.5)
	연금/퇴직금	36 (67.9)	30 (48.4)	66 (57.4)
	생활보호대상자	0 (0.0)	0 (0.0)	0 (0.0)
	자녀의 수입	15 (28.3)	20 (32.3)	35 (30.4)
	기타	6 (11.3)	6 (9.7)	12 (10.4)
동거인	독거	0 (0.0)	2 (3.2)	2 (1.7)
	배우자	45 (84.9)	48 (77.4)	93 (80.9)
	자녀	1 (1.9)	2 (3.2)	3 (2.6)
	배우자/자녀	7 (13.2)	10 (16.1)	17 (14.8)

()는 %임

다. 이는 첫째, 긍정적인 정서 경험과 부정적 정서 경험을 회상하도록 했을 때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사건을 더 잘 기억하며, 둘째, 사건 과 관련한 정서 강도 또한 긍정적인 때보다 부정적일 때 더 빨리 약해져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셋째, 젊은이들과 달리, 60살이 지

표 2. 개방형 질문 내용

1. 먼저, 싸웠던 일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최근에 (남편/아내/자녀)와 언성을 높여 싸웠던 일을 두 가지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로 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 이번에는 실망하거나 서운했던 일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최근에 (남편/아내/자녀)에게 실망하거나 서운했던 일을 두 가지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이번에는 화가 난 일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최근에 (남편/아내/자녀)에게 화 난 일을 두 가지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 이번에는 생각이나 뜻이 달랐던 일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최근에 (남편/아내/자녀)와 생각(의견, 뜻)이 달라서 언짢았던 일을 두 가지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면 과거의 부정적인 정서 강도를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Bernsten, 2002; Rozin & Royzman, 2001; Walker, Skowronski, Gibbons, Vogl & Thompson, 2003).

분석방법

응답 내용에 대한 분류는 심리학 전공의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1명이 각자 분류 후 1차 합의 모임을 통해 응답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응답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자가 각자 재분류 하였으며, 2차 합의 모임을 통해 분류된 것을 본 연구자들이 검토 수정하여 최종 분류하였다. 분류자 간 신뢰도는 80.8%이며, 일치되지 않을 때는 분류자 간에 2/3이상

의 일치율을 보는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1.0을 사용하여 비율, 평균, x^2 를 구하였다.

결 과

노인의 부부갈등 영역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노인의 부부갈등 영역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지며, 대분류 차원에서는 다음의 4가지 영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부부관계 영역, 공동생활 영역, 개인 내 영역, 부부 외 가족관계 영역. 이 4가지 부부갈등 영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x^2=152.2, p=.000$), 노년기 부부는 부부관계 영역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부부 외 관계 영역에서 가장 적게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년기 부부가 가장 많은 갈등을 보고한 부부관계 영역(50.39%)에는 무시, 돌봄 및 관심 행동 부족, 소통 부족, 부부동반 활동문제, 성관계 문제/의처(부)가 포함되었으며 제시된 순서대로 갈등이 많았다($x^2=170.2, p=.000$). 부부관계 영역 다음으로 많은 갈등을 보이는 공동생활 영역(22.83%)에는 경제 문제와 가사 문제가 포함이 되었으며, 경제 문제가 가사 문제보다 더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다($x^2=5.07, p=.05$). 공동생활 영역 다음으로 많은 갈등을 보인 개인 내 영역(19.65%)에는 건강관리 소홀, 기질 및 성격 차이, 사회활동 문제, 생활습관 차이, 종교 문제가 포함되었다. 부부갈등 영역 중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던 부부 외 가족 관계 영역(7.09%)에는 자녀 문제와 처가/시가 문

표 3. 노인의 부부갈등 영역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예문	
부부 관계 (192)	무시 (99)	무시 및 소외(65)	내 말은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한다.	
			내가 한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한다.	
			내 마음은 몰라주고 다른 사람 편을 든다.	
		독단적 행동(12)	다른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고 나는 종종 소외된다.	
			내 말을 안 듣고 탄청을 피운다.	
			이웃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곤 한다.	
		힘겨루기(12)	부부지간에 의논해야할 것을 상의 없이 혼자 처리한다.	
			내가 하려는 것을 막고 자기 방식을 강요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등 남편 대접을 하지 않는 다.**	
	돌봄 및 관심행동 부족 (61)	자기중심적 행동(21)	자기가 틀렸음에도 싸우면 꼭 이기려고 한다.	
			사소한 실수 등에 꼬투리를 잡거나 지적을 자주 한다.	
		반찬투정(10)	나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바깥일, 바깥 사람만 신경쓴 다.	
			나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위주로 행동한다.	
			아내가 식사나 반찬을 신경써주지 않는다.**	
			남편이 반찬투정을 한다.	
			애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지 않는다.	
			무관심(7)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생일, 기념일 안 챙김(5)*	결혼 기념일,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다.*
인정 부족(4)	내가 애쓴 것에 대해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는다.			
소통부족 (13)	병간호 소홀(4)	내가 몸이 아픈데도 신경써주지 않는다.		
		사과 부족(4)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좀처럼 사과를 하지 않는다.	
	부부동반 활동문제 (14)	부탁 안 들어주기(4)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대화 없음(3)	대화를 하려고 들지 않는다.	
		전화 연락 부족(2)	늦는다고 미리 전화연락을 해주질 않는다.	
성관계 문제/ 의처(부) (5)	성관계 불만족(3)	운동, 모임 등을 배우자와 함께 하기 싫은 데 배우자는 같이 하자고 한다.		
		운동, 모임 등을 배우자와 함께 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같이 하기를 싫어한다.		
			부부관계를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다.**	
			나는 원치 않는데 남편이 부부관계를 요구하여 불편하 다.*	

		의(疑)처(부)(2)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 몰래 만날 것이라고 의심 된다.
공동 생활 (87)	경제문제(54)	과소비(24)	돈을 너무 쓸데없이 마구 쓰는 편이다.
		기타 금전 관련(17)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툰다.
		용돈 부족(6)	용돈을 적게 준다.
		지나친 절약(4)	지나치게 돈을 아끼고 절약한다.
		경조사비(3)	친척이나 주변사람의 경조사에 얼마를 낼지 의견이 다를 때가 많다.
가사 문제(33)	가사(33)		가사일(청소, 설거지, 정리정돈 등)에 소홀하다.** 집안일을 도와주는데도 아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 가사일(청소, 설거지, 정리정돈 등)을 도와주지 않는다.*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개인 내 (75)	건강 관리 소홀*(27)	음주(16)*	술을 지나치게 자주(혹은 많이) 마신다.*
		운동부족(3)*	운동을 안 한다.*
		흡연(3)*	담배를 너무 즐긴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3)*	남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해서 건강을 해치곤 한다.*
		지나친 건강 챙김(2)*	남편이 병원에 지나치게 자주 가거나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너무 좋아한다.*
	기질 및 성격 차이(19)	느림/급함(5)	매사에 느리다(혹은 매사에 급하고 다혈질이다).
		융통성 부족(5)	너무 강직하고 융통성이 없다.
		소극성(5)	너무 소극적이고 당당하지 못하다.
	사회활동 문제(20)	내향성(4)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혼자만 있으려고 한다.
		바깥 활동(14)	내가 외출하거나 놀러가는 것을 싫어한다.
생활습관 차이(6)	늦은 귀가(6)	너무 늦게 귀가한다.	
생활습관 차이(6)	생활습관 차이(6)	생활습관(잠자는 것, TV 시청 등)이 많이 다르다.	
	종교문제(3)*	배타적 태도(2)*	남편은 내가 종교생활 하는 것을 싫어한다.*
		동반활동 희망(1)*	남편과 함께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 따라 준다.*
부부 외 가족 관계 (27)	자녀문제 (17)	취업/결혼(11)	자녀의 직장, 결혼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다툰 때가 있다.
		기타 자녀관련(6)	자녀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다툰 때가 있다.
치가/시가 문제(10)	관심부족/과다(7)	치가/시가 식구들에게 관심이 너무 적다.	치가/시가 식구들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진다.
		과거사 들먹이기(3)	치가/시가와 있었던 과거의 갈등, 잘못에 대해 자꾸 들먹거린다.

주. 괄호 안은 응답문항의 수; *는 여자노인만 응답; **는 남자노인만 응답

제가 포함되었다. 자녀 문제의 경우, 자녀의 취업과 결혼 문제가 포함되었으며, 처가/시가 문제에는 처가/시가 식구들에 대한 관심부족/과다, 처가/시가와 관련한 과거사 들먹이기가 포함되었다.

노인 부부갈등의 남녀 차이

노년기 부부가 겪는 갈등 중 부부관계 영역 ($x^2=11.32, p=.05$)과 개인 내 영역($x^2=9.92,$

$p=.05$)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남자 노인은 부부관계 영역에서 여자보다 갈등을 더 보고하였고, 여자는 개인 내 영역에서 남자보다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부부관계의 중분류에서도 남녀 차가 있어 살펴보니, 무시와 돌봄 및 관심 행동 부족 영역에서 남녀 차($x^2=8.60, p=.05$)가 있었다(표 4). 즉, 남자의 경우 배우자의 무시와 관련한 갈등이 여자보다 더 많고, 여자의 경우 돌봄 및 관심 행동 부족과 관련한 갈등이 남자보다 더 많은

표 4. 노인 부부갈등의 남녀 차이

분류	남 n (%)	녀 n (%)	전체 n (%)
부부관계 영역	107 (54.04)	85 (46.45)	192 (50.39)
무시	62 (57.94)	37 (43.53)	99 (51.56)
돌봄 및 관심 행동 부족	25 (23.36)	36 (42.35)	61 (31.77)
소통 부족	7 (6.54)	6 (7.06)	13 (6.77)
부부동반 활동 문제	9 (8.41)	5 (5.88)	14 (7.29)
성관계 문제/의처(부)	4 (3.74)	1 (1.18)	5 (2.60)
공동생활 영역	44 (22.22)	43 (23.50)	87 (22.83)
경제 문제	26 (59.09)	28 (65.12)	54 (62.07)
가사 문제	18 (40.91)	15 (34.88)	33 (37.93)
개인 내 영역	35 (17.68)	40 (21.86)	75 (19.65)
건강 관리 소홀	9 (25.71)	18 (45.00)	27 (36.00)
사회활동 문제	14 (40.00)	6 (15.00)	20 (26.67)
기질 및 성격 차이	10 (28.57)	9 (22.50)	19 (25.33)
생활습관 차이	2 (5.71)	4 (10.00)	6 (8.00)
종교 문제	0 (0.00)	3 (7.50)	3 (4.00)
부부 외 가족 관계 영역	12 (6.06)	15 (8.20)	27 (7.09)
자녀 문제	7 (58.33)	10 (66.67)	17 (62.96)
처가/시가 문제	5 (41.67)	5 (33.33)	10 (37.04)
계	158 (100.00)	183 (100.00)	381 (100.00)

표 5. 노인-성인자녀갈등 영역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예문
관계 (119)	관심 및 접촉 부족(66)	전화연락 부족(25)	전화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
		모임/행사참석 부족(13)	가족모임에 빠르다며 자주 빠진다.
			부모의 생일을 잊거나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
		왕래 부족(10)	집에 자주 왕래하지 않는다.
		관심표현 부족(5)	자식들이 무뚝뚝하고 다정하지 못하다.
		대화 부족(5)	자식들이 먼저 대화를 하려고 들지 않는다.
		아플 때 관심 부족(5)	부모가 아파도 자식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감사 부족(3)	부모가 이제껏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해 하지 않는다.	
	무시(46)	부모 의견 무시(31)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부모의 방식은 구식이라며 들으려하지 않는다.
		소외(11)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다.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며느리나 사위 편을 든다.
			부모보다 일을 더 중요시 여긴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반찬을 챙겨줘도 괜찮다며 마다 한다.			
부모 지원 거부(4)	자식을 위해 무엇을 사주려고 하면 사지 말라고 한다.		
경제적 지원 부족(7)**	용돈 지원 부족(5)**	용돈을 적게 주거나 잘 안 챙겨준다.**	
	경제적 지원 부족(2)**	경제적으로 넉넉함에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안 해준다.**	
자녀의 자립 및 자기 관리 (59)	자녀의 자립 문제(36)	결혼/이혼 문제(23)	자녀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감을 데리고 온다. 자녀의 부부관계가 안 좋아 이혼을 했다(혹은 이혼 하려고 한다).
		구직 문제(9)	자녀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다.
		경제적 의존(4)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거나 요구한다.
	자녀의 자기관리 문제(23)	낭비(11)	자녀가 계획성 없이 돈을 막 쓴다. 절약하지 않고 낭비가 많다.
		불규칙적인 습관(6)	생활이 불규칙적이다.
		청소, 정리정돈 부족(6)	자녀가 청소,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손자녀 문제 (26)	손자녀 문제 (26)	양육/교육 방식 차이(21)	자녀들의 손주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미출산(3)**	대를 이을 손자가 없어서 아쉽다.** 손자녀를 낳아줬으면 좋겠다.
		양육 부담(2)*	내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손주를 맡기려고 한다.*

주. 괄호 안은 응답문항의 수; *는 여자노인만 응답; **는 남자노인만 응답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성인자녀갈등 영역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갈등 영역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지며, 대분류를 살펴보면 다음의 3가지 영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관계 영역, 자녀의 자립 및 자기관리 영역, 손자녀 문제 영역. 이 3가지 성인자녀 갈등 영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x^2=65.38, p=.000$), 노인은 성인자녀와 관계 영역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손자녀 문제 영역에서 가장 적게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이 성인자녀와 가장 많은 갈등을 보고한 관계 영역(58.33%)에는 관심 및 접촉 부족, 무시, 경제적 지원 부족이 포함되었으며 제시된 순서대로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x^2=45.39, p=.000$). 관계 영역 다음으로 많은 갈등을 보이는 영역은 자녀의 자립 및 자기관리 영역이다(28.92%). 중분류의 자녀의 자립 영역에는 자녀의 결혼 및 이혼 문제, 구직 문제, 자녀의 경제적 의존이 포함되었다. 이어 자녀의 자기관리 영역에는 낭비, 불규칙적인 습관, 청소 및 정리정돈 부족이 포함되었다. 노년기에 겪는 성인자녀와의 갈등 영역 중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던 손자녀 문제 영역(12.75%)에는 양육 및 교육방식 차이, 미출산, 양육 부담이 포함되었다.

노인-성인자녀 갈등의 남녀 차이

노인이 겪는 성인자녀와의 갈등 중 관계 영역($x^2=8.33, p=.05$), 자녀의 자립 및 자기관리 영역($x^2=5.37, p=.05$), 손자녀 문제 영역

표 6. 노인-성인자녀 갈등의 남녀 차이

분류	남 n (%)	녀 n (%)	전체 n (%)
부모-자녀 관계 영역	57 (63.33)	62 (54.39)	119 (58.33)
관심 및 접촉 부족	30 (52.63)	36 (58.06)	66 (55.46)
무시	20 (35.09)	26 (41.94)	46 (38.66)
경제적 지원 부족	7 (12.28)	0 (0.00)	7 (5.88)
자녀의 자립 및 자기 관리	25 (27.78)	34 (29.82)	59 (28.92)
자녀의 자립 문제	19 (76.00)	17 (50.00)	36 (61.02)
자녀의 자기관리 문제	6 (24.00)	17 (50.00)	23 (38.98)
손자녀 문제 영역	8 (8.89)	18 (15.79)	26 (12.75)
양육/교육 방식 차이	5 (62.50)	16 (88.88)	21 (80.76)
미출산	3 (37.5)	0 (0.00)	3 (11.53)
양육 부담	0 (0.00)	2 (11.12)	2 (7.69)
계	90 (100.00)	114 (100.00)	204 (100.00)

($x^2=10.76$, $p=.001$) 모두에서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갈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중분류에서도 남녀차이가 있었는데, 관계 영역 내의 무시($x^2=9.36$, $p=.05$)의 경우 여자가, 경제적 지원 부족($x^2=7.00$, $p=.001$)에서는 남자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다. 즉, 여자 노인은 정서적 측면에서, 남자 노인은 경제적 측면에서 갈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자녀의 자립 및 자기관리 영역에서 결혼이나 구직과 같은 자립 영역에는 남녀 차가 없었으나, 자녀의 자기관리($x^2=7.12$, $p=.05$) 영역에서는 남녀 차가 유의하였다. 즉, 자녀의 청소, 정리정돈 부족, 낭비, 불규칙적인 습관에 대해 여자 노인이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이 주요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노인의 부부 갈등과 성인자녀 갈등의 제 영역을 살펴보고, 남녀 차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부부갈등에 대한 분석을 보면, 노인은 부부가 생활하고 관계하고 있는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갈등을 보고하였다. 이는 Marks(1989)의 부부관계 영역에 대한 체계론적 분류범주에 기초하여, 부부갈등 영역을 부부 생활의 전반을 포괄하도록 개인특성 영역, 부부관계특성 영역, 공동생활특성 영역, 제삼자특성 영역으로 설정한 이경희(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 영역, 부부관계 영역, 공동생활 영역, 부부의 가족관계 영역이라 명명하였으며, 이것을 노인의 부부갈등 영역의 대분류로 구분하였다. 4가지 부부갈등 영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어 살펴보니, 무시, 돌봄 및 관심 행동 부족, 소통 부족, 부부 동반 활동 문제, 성관계 문제/의처(부)를 포함하는 부부관계 영역(50.39%)에서 부부갈등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이는 노년기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킬 때의 시간, 노동,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난 시기로, 노년기 부부들은 자녀가 집을 떠남에 따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새로운 친밀성을 요구받게 되어 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 쉽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김길현 등, 2012; 김재엽 등, 1998; 김양희 등 1997; 전길량 등, 1998). 이러한 결과는 성격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가장 많다는 전길양 등(1998)의 연구와는 불일치하는데, 이는 전길양 등(1998)의 연구가 노년기 부부갈등을 성격 문제, 의사소통 문제, 경제적 문제, 성 문제로 제한적으로 설정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의 제 영역을 다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주요 부부갈등 영역인 부부관계 영역에서 남자 노인(54.04%)이 여자 노인(46.45%)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이는 남자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여성성이 증가하고, 수동성을 보이며, 부부관계에서 부양과 애착을 더욱 필요하게 되기에 그 욕구가 좌절되면서 오는 갈등이 여자 노인보다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변화순, 1999). 부부관계 영역의 중분류에서 남자 노인(57.94%)은 무시에, 여자 노인(42.35%)은 돌봄 및 관심 행동 부족에 더 많은 갈등을 보고 하였다. 이는 남자 노인이 가부장적 권력자로서의 우월한 지위구조에 익숙해져 있어 무시에 더욱 취약하고, 여자 노인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부부간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결혼관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껏 복종과 희생을 강요당하

고 감수하였던 것을 거부하며 자신도 돌봄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자각하고 요구하게 되어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함을 시사한다(김경신, 1998; 노치영, 1995).

성관계 문제/의치(부)가 2.60%로 매우 적은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부부관계 영역에 포함하였다. 노인이 되어도 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성적 능력을 유지하며, 노인 부부의 75% 이상이 부부관계에서 성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부부 성관계에서 뚜렷한 감소가 있을 경우 결혼 만족도를 낮게 보고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성관계 문제/의치(부)는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오진주, 1998; Ade-Ridder, 1990).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보고를 기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갈등 영역에 포함시켰다.

부부관계 영역(50.39%) 다음으로 노인들은 경제 문제와 가사 문제를 포함하는 공동생활 영역(22.83%)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중분류 구분으로 살펴볼 때, 무시(99회), 돌봄 및 관심 행동 부족(61회) 다음으로 많은 갈등을 보고한 것이 경제 영역(54회)이다. 노년기에는 은퇴 등 소득 감소로 인해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고 협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제적 갈등을 겪는다는 전길양 등(1998)의 주장을 지지하며, 노인들은 부부관계의 정서적 측면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 영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보고된 갈등영역은 가사 영역(33회)이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은퇴 후 가사노동에 참여하게 될 시간적 여유가 증대하게 되며 부인은 남편이 가사노동에 함께 참여해 주길 바라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자 노인의 경우 과거에 비해 가사노동 참여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부분에서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태현 외, 1997; Atchley, 1994; Lee & Shehan, 1989).

대분류의 개인 내 영역에는 건강관리 소홀, 사회활동 문제, 기질 및 성격 차이, 생활습관 차이, 종교 문제와 같은 중분류가 포함되었다. 남자(17.68%)보다 여자(21.86%)가 개인 내 영역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1930년에서 이후로 사회화를 거친 현재 60대 이상의 여자 노인은 남편과 자녀를 위해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하며 만족감과 자존감을 갖게 되는 ‘주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김은정, 2008). 이러한 이유로 여자 노인의 경우, 남편의 건강관리 소홀, 사회활동, 기질 및 성격, 생활 습관 차이, 종교와 같은 개인 내 영역에 관해 더 많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은 부부관계, 공동생활, 개인 내 영역 다음으로 부부 외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 영역은 부부갈등 영역 중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 처가/시가와 관련한 갈등이다. 주목할 것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시가 혹은 처가로 인한 갈등이 적지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사회관계망이 축소되는 노년기에 심리적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성인자녀와 겪는 갈등에 관한 것이다. 노인은 성인자녀와 관계 영역, 자녀의 자립 및 자기관리 영역, 손자녀 문제 영역에서 갈등으로 겪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영역에서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자녀갈등을 많이 겪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는 더 가깝고,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나 부모로서의 만족감은 낮다고 한 안정신(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노부모 중 여자 노인들이 자녀와의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이윤정, 이신숙, 신효식, 1994; 최정혜, 1992).

노년기 성인자녀 갈등 영역에서 관심 및 접촉 부족, 무시, 경제적 지원 부족을 포함하는 관계 영역(58.33%)에서 갈등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관계 영역은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정서적 측면과 경제적 지원 부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이 있겠다. 관심 및 접촉 부족과 무시와 같은 정서적 측면(94.12%)이 용돈 지원 부족을 포함하는 경제적 지원 부족(5.88%)보다 훨씬 많이 보고되었다. 이는 노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한 연구를 지지하며(민무숙, 1995; 전길량, 1993; 정경희 등, 2005), 정서적 갈등이 재정적 갈등보다 더 높게 나타난 최정혜(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관계 영역의 중분류에서 비록 보고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남자 노인(12.28%)이 여자 노인(0.00%)보다 경제적 지원에서 갈등을 많이 보고 하였으며, 여자 노인(41.94%)의 경우 남자 노인(35.09%)보다 자녀의 무시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여자 노인은 자녀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남자 노인은 경제적 지원을 더 원하고, 이것이 좌절될 때 갈등을 더 많이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계 영역 다음으로 자녀의 자립 및 자기관리 영역(28.92%)에서 갈등이 많이 보고되었다. 자녀의 자립에는 자녀의 결혼 혹은 이혼 문제, 구직 문제 그리고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

대하거나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의존 문제가 포함되었다. 자녀의 자기관리에는 낭비, 불규칙적인 습관, 청소 및 정리정돈 부족이 포함되었다. 성인자녀 갈등 영역에 자녀의 자립 및 자기관리가 포함된 것은 자녀에 대한 평가를 곧 부모 자신의 양육의 성공여부와 관련시키는 특성과 상관이 있어 보인다(Antonucci & Akiyama, 1997), 특히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은연중에 자녀의 성공에 대리 만족하며 자녀에게 헌신하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노인이 자녀와 겪는 갈등에서 12.75%를 차지한 손자녀 문제 영역에 관한 것이다. 이 영역에 관한 갈등은 주로 여자 노인이 보고한 것인데, 손자녀 문제 양육 및 교육 방식 차이(80.76%)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손자녀 미출산(11.53%), 손자녀 양육부담(7.69%)이 포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보육관련 사회서비스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육역할의 대행자로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2005)에 따르면 전일제 및 시간제 취업모의 아동자녀 40.7%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며, 취업모의 58.8%가 출산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으로 조부모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자녀 양육 조부모 중 조모의 양육 비율이 8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조모의 손자녀 양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노인은 현대식 교육을 받고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와 손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양육이나 교육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

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자녀 미출산 갈등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진 노부모와 달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임신과 출산을 하나의 선택으로 보는 자녀와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부부 갈등과 성인자녀 갈등이 일어나는 제 영역을 확인하였다. 특히 노년기 부부갈등의 경우,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생활하고 관계하는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 갈등과 성인자녀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본 연구에서 확인한 부부 갈등과 성인자녀 갈등의 제 영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년기 부부갈등 영역은 선행 연구와는 달리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보다는 부부 간 무시나 돌봄 및 관심 행동의 부족과 같은 부부관계의 정서적 교류와 관련한 영역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셋째, 노인의 부부갈등에 남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서적 측면에서 남자는 무시에, 여자는 돌봄과 관심 행동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의 경우, 부부관계 영역에서, 여자의 경우 개인 내 영역에서 더 많은 갈등을 보고하고 있었다. 이는 이후 노년기 부부갈등 중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때 남녀의 상이한 갈등 양상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이 겪는 자녀갈등이 보다 다양하고 정도도 남자 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자녀와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자노인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배우자와 함께 오랜 결혼생활을 지속했고 대체로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건강상태도 비교적 좋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대상을 폭넓게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노인부부를 한 단위로, 노인과 성인자녀를 한 단위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60세 이상 개별 노인을 집단으로 선정하여, 배우자와의 관계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노인이 지각하는 갈등을 살펴보았다. 노년기 부부갈등과 성인자녀와의 갈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인 부부 및 노인과 성인자녀를 각각 한 단위로 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주목적이 갈등의 제 영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을 빈도 분석하여 각 영역별, 남녀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갈등을 경험하는지 갈등의 강도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따라 갈등에 대한 보고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독거, 자녀와 동거, 배우자 및 자녀 동거, 배우자 동거와 같은 동거인 유형에 따른 갈등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부부 및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가족 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족주기 전반에 걸쳐 갈등 악화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종단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갈등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의 조사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강 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0, 95-116.
- 강주령 (1990). 노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혜원 (2011).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연구: 사회적 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경신, 이선미 (2003).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1(1), 139-153.
- 김길현, 하규수 (2012).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5), 256-271.
- 김귀애, 홍창희 (2012). 성인 자녀와의 갈등과 통제 전략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03-321.
- 김명자, 이윤정 (1995).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25-137.
- 김미령 (2012). 노인의 스트레스와 성인자녀의 지지가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2, 1-27.
- 김양희, 이형실 (1997). 결혼과 가족. 서울: 중앙대 출판부.
- 김영자 (1992). 도시 지역 주민이 경험한 부부 간의 갈등요인, 갈등정도, 정신건강상태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 (2008). 여성노인의 생애구술을 중심으로 본 노년기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지속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0(1), 27-67.
- 김재엽 (1998). 한국노인부부의 부부폭력실태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18(1), 170-183.
- 김재엽, 김동배, 최선희 (1998). 노인부부의 스트레스와 갈등, 우울증, 그리고 권력. 한국노년학, 18(3), 103-122.
- 김지영, 허성호, 고해리 (2005).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점: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세대간 갈등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50-351.
- 김태현 (1998). 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태현, 전길양 (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167-182.
- 김희국 (2010).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음주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2), 95-106.
- 노치영 (1995). 한국 부부의 부부문제해결과정: 자아상태, 문제인지, 문제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무숙 (1995). 노모와 성인 딸/며느리 간의 상호원조 유형이 부양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1), 74-90.
- 박경란, 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인옥, 엄기옥 (2007). 노부모의 의존성이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아동기 피학대경험과 부모부양의식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179-194.
- 변화순 (1999). 노인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노인과 한국사회, 33-70,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서병숙, 이신숙 (1991). 농촌 기혼여성 노부모 부양 의식 부양 수행도. 한국노년학, 11(2), 191-211.
- 서병숙, 이신숙 (1993a). 부양자 스트레스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3(1), 39-54.
- 서병숙, 이신숙 (1993b). 기혼여성의 노모 부양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67-81.
- 서병숙, 이신숙 (1994). 기혼여성(며느리, 딸)의 노부모 부양스트레스와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57-71.
- 성혜영, 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2(2), 75-93.
- 송다영 (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 지원정책 방향성: 기혼여성의 부양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9, 207-233.
- 송다영, 김미경 (2003). 여성의 취업실태별 노인부양부담과 역할갈등. 한국여성학, 19(2), 145-176.
- 송성자 (2002). 한국가족문화와 가족치료. 한국사회복지논문집, 6:105-122.
- 송현애, 김순옥 (1988).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 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83-101.
- 신일진, 김태현 (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27-44.
- 안정신 (2005). 중노년기 미국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전생애 발달과정의 부모자녀관계와 생산감 발달의 영향. 한국노년학, 25(2), 245-266.
- 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Cooney, M. T. (2011). 성공적 노화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3), 35-54.
- 오진주 (1998). 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대한보건간호학회, 12(2), 236-251.
- 옥경희 (1996).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 부양: 의무에서 성숙의 차원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65-276.
- 윤현숙, 유희정 (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자, 김태현 (1992). 노인 부양자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할머니와 며느리의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12(1), 1-18.
- 이윤정, 이신숙, 신효식 (1994). 노부모의 성인 자녀와의 갈등 및 우울에 관한 연구. 가정과학연구, 4, 41-56.
- 이정화, 한경혜 (2000). 농촌지역 며느리의 부양의식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169-182.
- 이희자, 김영미 (1996). 청소년의 부모 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 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117-128.
- 전길량 (1993). 노모와 성인 딸 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부양기대요인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길양, 임선영 (1998). 노년기 부부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6), 1-12.
- 전지혜 (2012). 노인의 관계욕구와 주관적 안녕감과 우울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 논문.
-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김희경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정여진, 안정신 (2010).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4), 143-161.
- 정연표, 이홍직 (2011). 노년기 부부의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GRI 연구논총. 13(2), 151-180.
- 조경자, 한동희, 조은희 (1996)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동거관계에서 발생하는 세대간 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261-273.
- 천혜정, 최혜경, 강 인 (2006). 결혼 지속 연수에 따른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 방법의 차이와 결혼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79-202.
- 최상진, 이장주 (1999). 정(情)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 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219-234.
- 최정혜 (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정혜 (1993).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들의 성인자녀와의 갈등 비교. 한국노년학연구. 2, 55-63.
- 최재석 (1982). 한국가족 연구. 일지사.
- 최혜경 (2008). 한국 노인들의 기대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 개념 형성과 중재방안의 탐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45-168.
- 통계청 (2005). <http://Kosis.kr>. E통계자료실.
- 통계청 (2010). 고령자 통계. 서울: 통계청.
- 한경혜, 홍진국 (2000). 세대 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55-8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가족 내 돌봄노동실태조사. 2006 연구보고서-2.
- 한은주, 김태현 (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 14(1), 95-116.
- 홍달아기, 동환숙 (1996). 성인자녀-노부모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논문집. 32(2), 571-588.
- 홍숙자, 이형실, 전길양 (1995).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부양 교육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3(5), 197-209.
- Ade-Ridder, L. (1990). *Sexuality and marital quality among older married couples*. H. Brubaker (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Beverly Hills, CA: Sage.
- Ade-Rider, L. & T. H. Brubaker (1983). *The quality of long-term marriages*. T. H. Brubaker (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Sage Publications, 21-30.
- Allen, K. R., Blieszner, R. & Roberto, K. A. (2000). Families in the middle and later years: A review and critique of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911-926.
- Antonucci, T. C. (1985). *Social support Theoretical advances, recent findings and pressing issues*. In L. G. Sarason & B. R. Sarason (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Boston: Nijhoff.
- Antonucci, T. C., & Akiyama, H. (1997). *Concern with others at midlife; Care, comfort or compromise?* In M. E. Lachman & J. B. James (Eds.), *Multiple paths of midlife development*

- (pp.145-17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tchley R. C. (1994). *Social Forces &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ers.
- Bernsten, D. (2002). Tunnel memories for autobiographical events: Central details are remembered more frequently from shocking than from happy experiences. *Memory & Cognition*, 30, 1010-1020.
- Ikkink, K. K., & Tilburg, T. V. (1999). Perceived instrumental support exchanges in relationships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Normative and structural explan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831-844.
- Lee, G., & Shehan, C. (1989).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4, S226-230.
- Marks, S.R. (1989). Toward a systems theory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5-26.
- McCulloch, B. J. (1990). The relationship of intergenerational reciprocity of aid to the morale of older parents: Equity and exchange theory comparisons, *Journal of Gerontology*, 45(4)
- Rozin, P., & Royzman, E. B. (2001). Negativity bias, negativity dominance, and contag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 296-320.
- Seelbach, W. C. (1978). Correlates of aged parents'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 and relations, *The Family coordinator*, 27(4), 342.
- Suitor, J. J. & Pillemer (1988).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adult-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 1037-1047.
- Wagner, C. C., Kiesler, D. J., & Schmidt, J. A. (1995). Assessing the interpersonal transaction cycle: Convergence of action and reaction interpersonal circumplex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38-949.
- Walker, W. R., Skowronski, J. J., Gibbons, J. A., Vogl, R. J., & Thompson, C. P. (2003). On the emotions that accompany autobiographical memories: Dysphoria disrupts the fading affect bias. *Cognition & Emotion*, 17, 703-723.

1차원고접수 : 2013. 03. 25.

수정원고접수 : 2013. 05. 28.

최종게재결정 : 2013. 05. 29.

An Exploratory Study on Perceived Conflict with Spouse and Adult Children of the Korean Elderly

Su-gyun Seo¹⁾ Yun-hee Lee¹⁾ Jeong-shin An²⁾ Young-sook Chong¹⁾

¹⁾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was purposed to explore Korean elderly's conflict with personal relationships. For this, we examined elderly's conflicts with spouse and adult children that were elderly's primary personal relationships. confirmed the areas of conflict, and tested gender differences of it. 115 elderly people(the average age 68.99) who were over 60 years old, had a spouse were participated for this stud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reas of marital conflict in the elderly consisted of marital relationships, communal living, intra-individual, relationships of other family except spouse relationship. Second, in marital conflict, men and women differed from two areas of marital relationship and intra-individual. Third, areas of conflict with adult children consisted of relationships, children 's independence and self-management, grandchildren. Fourth, in conflict with adult children, in all areas, women was experienced more conflict.

Key words : elderly, conflict with spouse, conflict with adult children, exploratory study